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 부르시어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제의 붉은 당기가 힘차게 나뭇기에는 당중앙위원회청사앞으로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전체 참가자들은 병병한 어로공들을 수산혁명의 선구자, 바다의 정복자로 내세워주시고 용당 해야 할 일을 한 전 사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오늘은 또다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격정에 북받쳐 목정껏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황금해력시창조의 앞장에서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높이 울리며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를 안아줌으로써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휘황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장엄한 진군을 다그쳐가는 전민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고 우리 당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한 회의 참가자들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충직하게 받들어 마음속신물때물 바짝 조어매고 당정책결사판철의

노를 역세계 지으며 뜻깊은 새해 주제106(2017)년에도 물고기보물산을 더 높이 쌓아올리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만리마세에 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세세년년 차넘치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 위원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일본 도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동지 앞

나는 우리 조국의 위상과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펼친 뜻깊은 2016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7년을 맞이하면서 의장동지들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일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총련은 적대세력들의 반공외국, 반총련압살책동이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절여하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할 불굴의 신념을 지니고 적극적인 투쟁으로 조직건설과 애국애사사업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모진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총련조직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눈부신 기적과 자랑찬 성과물에는 멀리 이역에서 조국인민들과 뜻도 슬금도 같이해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적자성과 헌신의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나는 부강조국건설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성스러운 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굳건히 수호하고 총련애국사업을 활력있게 전진시켜온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전제 조국인민들의 마음까지 합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2017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주체혁명의 세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전철의 해입니다.

새해에 총련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애국총정의 본래를 계속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헌신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제, 병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애국애족의 성세, 믿음직한 성들로 단결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과 새 세대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상공인들을 비롯한 동포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주체적인 애국력량을 더욱 강화하며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노선과 대외정책을 관철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주체혁명위업, 총련애국위업의 승리는 과학이라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총련중앙의 무리에 굳게 뭉쳐 승승장구하는 조국과 더불어 총련의 위용을 더 높이 펼쳐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새해에 의장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건강하고 가정들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김정은
주제106(2017)년 1월 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보증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을 인민사수원, 인민복무전에도 부른 당중앙의 호소를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수도건설위원회 산하단위 지체인 양현애, 김미애, 강영애, 사장 방만부, 로동자 박용경, 내각사무국 산하단위 부원 김향순, 류정학, 립업성 산하단위 부원 신범은 삼림건설에 전심히 필요한 많은 자재들과 생활필수품, 학습품들을 북부전선에 보내주었다.

인민보안성 산하단위 지체인 김성숙은 온 가족이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가지고 피해복구전투장으로 달려가 건설자들과 일도 함께 하고 후방사업도 용이 크게 하여 그들을 기적창조에도 고무하였으며 인민보안원 비은송도 무산군 피해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였다.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무하는것을 당의 존재방식, 혁명적당풍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에 대한 끝없는 신뢰심을 지니고 인민보안성 산하단위 지체인 민철수, 사장 유규옥, 예아리사관 연구사 최영화도 삼림건설에 많은 자금을 헌납하고 갖가지 식료품들도 지원하는 애국적소행을 발휘하였다.

역난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총체로 기울여주어도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중대조치를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모란지도국 산하단위 지체인 환경애, 부원 강태범, 로동자 비금춘, 김정애, 평양시혁명사적관리국 산하단위 지체인 송금녀, 동원호식당 지체인 리은영, 대성지도국 황인섭, 봉화지도국 산하단위 총역인 방남애, 마천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최영심, 의학연구원 중앙연구소 하은철, 평양시제1인민병원 의사 최은심, 평양호텔 로동자 리은향, 최은정, 평양단고기집 부원 장성희, 인민봉사총국 산하단위 로동자 오미라는 가정들에서 성심성의껏 다해 마련한 생활필수품들과 자금을 북변 땅에 보내주었다.

평양도 역전태화집 지체인 한혜숙, 로동자 김혜란, 우시광산 소대장 방금혁, 우시군인민위원회 산하단위 소장 리광숙, 우시군광정사업소 수매원 최홍성, 초산군 인민위원회 산하단위 지체인 안남철, 자강도인민위원회 산하단위 사장 리승희,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최경애, 평안남도인민병원 의사 방준홍, 홍철, 리선일, 평안남도산원 의사 강은철, 최은금, 평안남도 도매상업관리국 로동자 립혜은, 평성시인민위원회 부장 백명호, 평성시상업관리소 로동자 방문녀, 산하단위 책임자 심혜숙, 평성시공공장 3대혁명소조원 리철웅, 남원목산물식당 책임자 최정희, 평성시사회교육관리소 산하단위 로동자 김영숙, 평성시연료사업소 로동자 김명희, 평성시편의봉사관리소 로동자 김은향, 평성시연료사업소 지체인 리은숙, 로동자 최희용, 순천시 새마을동 59인민단 오은애도 오직 어머니당만을 굳게 믿고 불사신마냥 열렬히어나 굴함없는 북부전투를 벌인 피해지역 인민들을 물질방면으로 지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을 단결하여 과시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무장인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갈 애국총정의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